우즈베키스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019. 10.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목 차]

Ⅰ.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1

2. 출장단 구성 ····· 2

3. 출장 기간 및 일정 ····· 2

Ⅱ. 주요 활동

1. 조사처장 및 예산처장 면담 ····· 3

2. 우즈베키스탄 의회예산처 설립 관련 초청세미나 1일차 ····· 8

3. 우즈베키스탄 의회예산처 설립 관련 초청세미나 2일차 ····· 20

4. 한국산업인력공단 우즈베키스탄 EPS-Center 방문 ····· 28

5.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방문 ····· 30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33

Ⅳ. 참고자료

1. 공식초청서한(Invitation letter) ····· 34

2. 세미나 개최 우즈베키스탄 뉴스 방송 ····· 35

3. 담당자 연락처 ····· 36

4. 우즈베키스탄 관련 자료 ····· 37

Ⅰ.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우즈베키스탄 의회예산처 설립 관련 초청 세미나

○ WFD에서 우즈베키스탄 독립재정기관(IFI) 설립(2019. 7. 설립) 초기 기관 형성 및 운영 관련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를 공식 초청

○ 예산 제도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경험 공유 등

※ Westminster Foundation for Democracy(WFD): 민주주의 제도를 해외에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영국의 공공단체로 전 세계 40개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중

❑ 한국산업인력공단 우즈베키스탄 EPS-Center 방문

○ 한국산업인력공단 EPS센터의 지원 내용 점검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우즈벡 인력의 국내 고용제도 개선방안 모색

※ EPS(고용허가제: Employment Permit System)

❑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방문

○ 타슈켄트에 설립된 한국교육원의 한국어 교육 활성화 사업 관련 현지 업무 환경과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한-우즈벡 양국의 교육협력 제도 개선방안 모색

2 출장단 구성

○ 김정규 기획예산담당관

○ 이상홍 추계세제분석관

○ 조흥연 정책분석관

○ 황용준 주무관

3 출장 기간 및 일정

❑ **2019. 10. 6(일) ~ 10. 12(토) [5박 7일]**

일자	주요일정
10.6(일)	○ 인천(17:05) → 타슈켄트(20:20)
10.7(월)	○ 세미나 관련 자료조사 및 발표 준비
10.8(화)	○ 조사처장 및 예산처장 면담
10.9(수)	○ 세미나 1일차 실시
10.10(목)	○ 세미나 2일차 실시
10.11(금)	○ 한국산업인력공단 우즈베키스탄 EPS-Center 방문 ○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방문 ○ 타슈켄트(22:20) → 인천(08:55)
10.12(토)	○ 인천 도착(08:55)

Ⅱ. 주요 활동

1 조사처장 및 예산처장 면담

1.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처 처장대리 면담

❑ 면담 개요

○ 장소: 우즈베키스탄 하원 회의실

○ 일시: 2019.10.8.(화) 14:00~14:50

○ 주요 참석자

- Mr. Doniyor Turaev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처(LPRI: Legislation and Parliamentary Research Institute) 처장대리
- Ms. Nargiza Abdukadirova, WFD 우즈베키스탄 대표

○ 통역: 한-우즈벡 순차통역

❑ 주요면담내용

○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처 현황 및 예산제도에 관하여 면담함.

- [조사처장 대리]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환영함. 나도 서울을 방문해 본 적이 있음.
- [기획예산담당관] 방문단을 대표해 감사드림.
- [조사처장 대리]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처는 연구활동도 함. 8개 부서 중 5개 부서가 연구팀임(법령, 경제, 사회, 예산 등). 조사처에는 약 3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크게는 2가지 분야로 나뉨. 첫 번째는 국가정책의 개발 및 개선이며, 두 번째는 분석 정보를 위한 연구임. 연구과정에서 국제기준과 경험이 중

요하며, 특히 한국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현재까지 기 분석한 자료는 100여개이며, 정부의 프로젝트도 50개정도 진행중임.

올해는 우즈벡에서 예산·정책 분야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PBO 설립도 그 중의 하나임.

우즈벡 조사처는 국제협력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회입법조사처와도 MOU를 채결했음.

우즈벡은 새로운 포털을 개발 중임. 국민들이 자기 민원이나 의견을 남기면 "좋아요" 수에 따라서 국회에서 조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제도임.(청원제도)

내일과 모레 세미나에는 의회 직원들과 대학교 교수님들도 참석할 것임.

- [기획예산담당관] 세미나에 대한 높은 관심에 감사함.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의회 관련 기관들이 성장하고, 계속 인연이 되기를 희망함.

- [조사처장 대리] 우즈벡 예산 분야의 성장에 대해 우즈벡 대통령의 관심이 많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20년부터 모든 국가예산은 법령에 따라 정해질 것임. 또한 모든 예산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국민공개시스템(open budget)'을 통하여 국가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임. 모든 선진국가에서는 예산은 투명하다고 알고 있음. 우리의 목표도 정부와 국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임.

- [우즈벡 직원] 최근 우즈벡 예산에 변화가 많음. 국회의 예산심의 역할 강화도 그 중의 하나임. 우즈벡은 예산의 성과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관심임.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의 투명성, 공개성, 성과성을 높이기 위한 우즈벡의 노력을 높이 평가함.

2. 우즈베키스탄 의회예산처장 면담

❑ 면담 개요

○ 장소: 우즈베키스탄 하원 회의실

○ 일시: 2019.10.8.(화) 15:00~16:00

○ 주요 참석자

- Mr. Komiljon Ernazarov 우즈베키스탄 의회예산처장
- Ms. Nargiza Abdukadirova, WFD 우즈베키스탄 대표

○ 통역: 한-우즈벡 순차통역

❑ 주요면담내용

○ 우즈베키스탄 의회예산처 설립 및 예산제도에 관하여 면담함.

- [예산처장] 우즈벡 방문을 환영함.우즈벡은 독립한 지 28년이 되었으며, 최근 많은 성장을 이루고 있음. 다양한 국제적 경험, 특히 한국의 경험이 필요함. 한국은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임. 중요한 경험과 지식을 배우고 싶음. 우즈벡과 한국은 문화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으며, 역사적으로도 우호적인 관계임. 우즈벡에는 고려인들이 많으며 고려인 출신 국회의원이나 장관도 있음.

  우즈벡 의회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음. 우즈벡 의회는 양원제이며 상원이 100명, 하원이 15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우즈벡 대통령의 지시로 올 7월 의회예산처가 설립됨. 의회예산처에 주어진 과제가 많음. 현재 의회예산처의 정원 11명 중 5명만 채용이 되었음. 훌륭한 전문가를 찾기 위해 노력 중임. 의회예산처의 중요한 역할은 예산 관련 정보의 분석, 예산의 투명성 확보임.

  내년도부터는 기존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예산이 정해진 것과 달리 법률에 따라 정해질 것임. 즉, 우즈벡은 앞으로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임. 새

로운 시스템의 도입 시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떤 경우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성과임.

- [기획예산담당관] 한국과 NABO에 대한 높은 평가에 감사드림.
  초대 처장으로서 부담이 클텐데 NABO의 경험과 노하우가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이번주가 NABO 설립 16주년이며, NABO의 정원은 138명임. NABO도 2003년 설립 된 후 시행착오를 겪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했음. 예산의 투명성과 성과성이라는 부분은 우리도 동일하게 고민하는 부분임.
  내년도부터는 법률에 따라 예산이 정해진다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정해졌는지?

- [예산처장] 경제부와 금융부에서 예산을 정하여 국회(하원 → 상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해짐.
  한국과 우즈벡의 모든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함. 최근 몇 년간 우즈벡의 국가정책은 국민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노력 중임.

- [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국회도 국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임. 향후에도 양국 의회예산처 간의 교류가 지속되기를 바람.

❑ 면담 종료 후 (하원)의회 본회의장 참관

- [예산처장] 우즈벡 (하원)의회 건물은 1996년 건설되었음. 하원 의회 건물 안에 국회도서관도 있음.
  본회의장에서 투표과정은 스크린을 통해 볼 수 있음. 대통령취임식도 본회의장

에서 이루어지며, 미리 신청하면 국민 누구든 방청 가능함.
전자로 의원들 자리에서 투표가 가능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투표함.
더 발전된 투표시스템으로 내년에 개편 예정임.

2 우즈베키스탄 의회예산처 설립 관련 초청세미나 1일차

❑ 세미나 1일차 개요

○ 일시: 2019. 10. 9(수) 10:00~16:00

○ 장소: 타슈켄트 법학대학 세미나실

○ 주요 참석자

- Mr. Doniyor Turaev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처 처장대리
- Mr. Komiljon Ernazarov 우즈베키스탄 의회예산처장
- Mr. KHAKIMOV Rakhim Rasuljonovich 타슈켄트 법학대학 총장 겸 법무부차관
- Ms. Nargiza Abdukadirova, WFD 우즈베키스탄 대표

○ 통역: 한-우즈벡 동시통역

❑ 개회사(10:00~10:15)

- [조사처장 대리] 이번 세미나의 참가자 환영함. 이번 세미나를 하는데 도움을 주신 타슈켄트 법학대학교 총장님, WFD 등 감사함. 이번 세미나가 우리 모두에게 효과적이고 도움이 될거라 생각함. 예산 정보의 분석과 개발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NABO의 활동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생각임.
- [법무부차관(법학총장)] 만나뵙게 되어 굉장히 반가움. 한국은 우즈벡의 큰 협력국가임. 우즈벡 대통령은 2017년에 한국에 방문한 바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올 5월에 우즈벡을 방문했음. 우즈벡과 한국은 서로 교류하는 분야가 다양함. 제가 한국 방문했을 때 한국의 법 정책, 국회정책과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우즈벡과 유사점을 발견 했음. 우리도 NABO를 보면서 우즈벡에도 이런 기관

을 설립하고 싶었음. 올 7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즈벡 의회예산처가 설립됨 오늘은 예산처장님과 다른 모든 직원들이 참석했음.

예산은 국가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함. 예산의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국가도 발전함.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하게 생각함. 우리는 한국과 한국 내 대학교와의 친근한 교류를 원함.

다시 한번 성공적 세미나 기대함.

- [예산처장]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 감사함. 한국에서 오신 분들 환영하고 감사함. 작년에 대통령이 의회와 같이 의회예산처 설립을 논의함. 솔직히 얘기하면 그동안 우즈벡 의회에는 이런 기관이 없었음. 이 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데 선진국들의 경험을 배우는 것이 중요함. 아시다시피 한국은 경제적으로 아주 발전한 국가이며,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 이빈 세미나는 우리에게 매우 효과적일 것임. 또한 한국도 우리에게서 뭔가를 배울 자리가 되기를 기원함.
- [WFD 담당자] WFD는 영국에 있는데 왜 우즈벡에 참석하는지 궁금할 것임. WFD는 전세계적으로 의회와 협력을 하고 있음.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국회와 산하기관과 협력하게 되었음. 다시 한번 NABO의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함. 이번 세미나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겠음.

❑ Introduction to the NABO and a role of NABO in supporting MPs conducting financial oversight - 김정규 기획예산담당관

○ 주요 자문내용

- NABO의 설립 배경
- NABO의 조직, 직무, 인력 규모, 채용, 연간 예산
- 대한민국 국회의 조직과 기능
- NABO 업무의 유형: 보고서, 간행물, 조사분석, 토론회, 대면보고 등

○ 주요 질의응답

- [예산처장] NABO의 기능 중 경제 분석(전망)과 관련된 기능이 한국의 다른 기관들(기재부, 금융위 등)이 하는 분석과 서로 겹치지 않는 지가 궁금함.

- [추계세제분석관]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경제관련 분석을 제공하는 기관은 많이 있음. 기재부에서는 경제정책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함. 한국은행은 통화·금융 정책을 운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 기간이나 목적에 따른 국회가 독자적인 재정 전망을 함으로써 더 객관적인 예결산 심사를 할 수 있음.

- [기획예산담당관] 기본적으로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며, 삼권분립 체제임. 그래서 기재부나 금융위는 본인들의 소관 업무가 있는 것이고, 국회는 행정부들이 제대로 예산을 분석하고 집행하는지 감시하는 업무를 하는 것임.
  중복에 대한 우려를 할 수도 있는데, 국회의 입장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경제, 재정 정보만을 가지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싱크탱크가 필요한 것임. 경제 분석이든 재정분석이든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예산처 직원] NABO가 설립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왜 하필 2003년인지가 궁금함.

- [기획예산담당관] 한국에서는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예결산 과정에서 행정부의 역할이 컸음. 정부가 제출한 대규모 예산을 한정된 시간 내에 국회의원들이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또한 한국 경제가 많은 성장을 했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관심과 지식은 부족했으며, 국회가 예결산 재정 심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했음.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재정이 튼튼하게 뒷받침 되지 않으면 경제위기가 올 수 있음을 깨달음.

- [예산처 직원] NABO에서 작성한 보고서 및 통계자료가 정확한지는 어떤 기관에서 조사하는지가 궁금함.(NABO의 결과물을 누가 검증하는지?)
- [기획예산담당관] NABO가 보고서를 생산할 때 여러 번의 심의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됨. 보고서 하나를 작성하는 데 긴 경우에는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함. 보고서 초안이 완성되면, 과, 실국, 처 차원에서 함께 확인을 거치게 됨.
  그리고 오류가 있다면 행정부, 국회의원, 언론이 그것을 놓칠 리가 없음. 또한 보고서는 분석관 개인만의 산물이 아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부의 담당자와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학계·전문가를 초청해서 확인하고 보충함. 내·외부 절차를 거쳐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고 있음.

- [예산처장] 우즈벡에는 국회가 있고 각 지방마다 산하기관이 있음. 그 기관을 위해서도 보고서를 생산을 하는지?(지방의회를 위해서도 분석을 하는지)
- [기획예산담당관] 우즈벡 지방의회와 대한민국 시스템이 다른 듯함.
  한국은 지방자치제가 있어서 NABO는 국회 차원의 기구이고, 각 지방정부별로 별도로 기구들이 구성되어 있음.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이 완전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NABO의 분석대상은 중앙정부, 즉 국가차원의 예산임.
- [예산처장]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다면, 지방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정부가 따로 관리를 하는지, 얼마나 독립적인지가 궁금함.
- [기획예산담당관] 서울을 예로 들겠음(서울은 한국 인구의 5분의 1이 거주하는 큰 도시임). 중앙정부와 별도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원을 별도로 선출함. 서울시 한해 예산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서울시의회에서 행사함. 중앙정부에서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 일부 예산을 교부해주기는 하지만(교부금), 기본적으로는 시스템은 분리되어 있음.
- [정책분석관] 기본적으로 한국의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됨. 지방세는 지자체가 가져가게 되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만 감시·감독을 하고 있음. 지방의회는 국회의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NABO가 통제할 수 없음. NABO가 생산하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국회를 위한 것이고,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를 돕는 조직이 따로 있음.

❑ a role of NABO in supporting MPs conducting financial oversight Budget analysis-continuation - 조홍연 정책분석관

○ 주요 자문내용

- NABO의 주요 발간자료: 예·결산 분석보고서를 중심으로
- NABO의 보고서 작성 과정
- NABO의 주요고객(지원 대상)
- NABO 분석보고서의 영향력
- 예·결산 보고서 작성 시 주요 분석기준: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적절성 등

○ 주요 질의응답

- [예산처 직원] NABO는 2003년도에 설립되었지만 현재 직원 수가 굉장히 많음. 왜 그렇게 근무하는 직원 수가 많은지 궁금함.
- [기획예산담당관] 전세계 의회소속 재정기구 중 NABO는 미국 CBO 다음으로 규모가 큼. 물론 정부구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규모가 적정한 인원인가에 대한 정답은 없음.
  다만, NABO의 경우, 출범 당시 94명에서 현재 138명까지 상대적으로 빠르게 조직 규모를 키워왔음. NABO가 직원을 늘리려면 (직제)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인원을 늘릴 수 있음. 그만큼 1명의 분석관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음.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재정 규모도 급격하게 커졌음. 1명의 분석관이 커버해야 할 예산의 규모가 커졌고, 그에 대한 정당성을 의원들이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규모에 도달할 수 있었음.
- [정책분석관] 정부예산은 9월 3일에 국회로 제출되며, 그 예산을 기한 안에 보고서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충분히 필요함. 충분한 인원들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국민의 요구일 것이므로 인원을 많이 늘려왔음.

- [예산처 직원] 인원이 국회의원 숫자에 따라 증가했는지?
- [기획예산담당관] 의원 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해짐. 의원 소속 보좌관들을 제외한 국회 소속기관 직원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가지는 일반 공무원들임.
  우리 기관은 의원 수나 선거와는 관련이 없고, 각 기관은 필요에 따라 조직을 늘려감.

- [예산처 직원] NABO 기관의 법적 형태에 대해서 궁금함. 국회산하기관인지?
- [기획예산담당관] 한국은 3권 분립임. NABO를 비롯해 국회 직원에 대한 임명권은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음. NABO는 「국회예산정책처법」에 의해 설립된 국회 산하 기관임. 행정부공무원과 국회공무원은 임용 절차부터가 다름.

- [조사처장 대리] 138명의 직원 중 예산전문가, 법학전문가 등의 비율이 어떠지?
- [기획예산담당관] (양국의 국가공무원 시스템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저희 같은 일반직공무원은 공채로 뽑은 직원이며, 전체 직원 중 저희 같은 일반직공무원이 절반을 차지함.
  나머지 절반 중 임기제 공무원은 박사학위를 받거나(주로 경제학, 행정학 등)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증 등 민간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약 40% 정도임. 법학 박사나 변호사 등은 국회입법조사처에 다수 존재함.

- [조사처장 대리] 아까 말씀하신 9가지 기준(예·결산 보고서 작성 시 주요 분석 기준)은 어떤 근거로 잡은 기준인지? 왜 9가지를 선택한 것인지, 국제적으로 9가지가 제일 중요한지?
- [정책분석관] 수없이 많은 기준이 있음. 그렇지만 제가 일하면서 얻은 경험으로는 9가지 기준이 가장 많은 지적사항이 발생함. 이런 것들을 시정하면 예산의 성과성과 효율성이 올라갈 것임.
  국제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NABO 설립 이후 보고서 작성 시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을 뽑으면 이정도 된다는 것임.

- [기획예산담당관] 기본적으로 정부는 사업을 크게 하고자하는 욕구가 있으며, 반면에 국회는 재정의 건전성을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음.
  요컨대 9가지 기준을 통해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국가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나온 경험적인 기준임.

- [예산처 직원] 어떤 부처가 예산안을 제출하면 어떻게 분석하는지 궁금함. NABO에서 예산 법령 외에는 다른 부처에서 들어오는 법령(예를 들어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예산에 대해 법령)이 만들어지면, 그것도 분석을 하는지?
  그리고 2003년에 설립 시 어떤 선진국에서 모델을 따왔는지?
- [정책분석관] 정부는 9월 3일에 국회에 예산안 제출함. 그러면 저희가 그 예산안을 보고 부처에 자료요구를 함.
- [기획예산담당관] 우리는 국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보좌기구임. 한국에서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의원과 위원회가 행사함. 문화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비용이 투입될 것인가라는 건 우리가 분석하지만, 원칙적으로 법률 개정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NABO는 평가하지 않음.
  그리고 2003년 설립 당시에 미국의 CBO를 벤치마킹으로 삼고 설립을 했음. 물론 국가별로 재정 시스템은 차이가 있어서 똑같이 가는 것은 아님. 미 CBO가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배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또한 부분적으로는 한국의 독자적인 재정 구조에 맞게, CBO와는 다른 방법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 [예산처 직원] 예산 관리에서는 세입과 세출이 가장 중요. 한국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 [정책분석관] 2018년 기준으로 국세가 293조원, 지방세가 84조원임.
  즉, 국세가 78%, 지방세가 22% 정도 됨.

- [예산처 직원] NABO의 예분실에서 55개 부처의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 [정책분석관] 모든 부처의 수입과 지출은 구분되어 있음. 부처마다 하나의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안에서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분석함.
  예를 들어, 예산의 경우 수입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그 세금을 다 걷을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지출의 경우에도 이 사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지, 결산의 경우 세금을 다 걷었는지, 지출에서는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가 잘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함.
- [기획예산담당관] 기본적으로 회계마다 수입과 지출이 있지만, 국세 수입이 제일 메인임. NABO의 전문가들이 세입을 중심으로 해서 총수입을 분석함.
  가령,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지금의 경제 전망이나 내년 GDP 등에 맞게 들어오는지 등을 검토함.

❑ Fiscal Estimates & Tax System Analysis - 이상홍 추계세제분석관

○ 주요 자문내용

- 비용추계 업무의 정의와 실시현황 등
- 비용추계 관련 발간 보고서
- 세제분석 업무의 정의와 실시현황 등
- 세제분석 관련 발간 보고서
- 재정전망 업무의 정의와 실시현황 등

❑ Economic Outlook & Policy Analysis - 이상홍 추계세제분석관

○ 주요 자문내용

- 경제전망 및 정책 분석 업무의 정의와 실시현황 등
- 경제현안분석 업무의 정의와 실시현황 등

○ 주요 질의응답

- [예산처 직원] NABO 는 어떤 국책기관들과 협력중인지? 그리고 NABO의 분석을 반영하여 매년 약 5조원 정도를 줄인다고 했는데 어떤 비중을 가지고 줄이는지?

- [정책분석관] 보고서 종류가 3가지가 있으며, 그중의 하나가 NABO에서 작성하는 것임. 나머지 하나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마지막이 예결위에서 작성함.
  한 군데에서만 작성을 하면 일부 누락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3가지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임.
  의원들은 이 3가지 보고서를 다 보고나서 정부에 질문을 하게 됨. 그래서 의원들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이면 예산을 감액하게 됨. 그래서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감액되는 예산이 약 5조원 정도 되며, 이 3가지 보고서가 모두 각각 역할을 하고 있음. 그 3가지 중 하나가 NABO의 보고서인 것임.

- [기획예산담당관] 정부가 예산안 제출 시 17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게 됨. 여기서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예산을 삭감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예산을 늘리기도 함. 이제 이러한 상임위의 심사결과가 모여 예결위로 넘어가서 종합심사에 들어감. 여기서 문제가 있는 사업들은 삭감되기도 하고, 증액되기도 함. 예결위의 심사가 마치면 300명의 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본회의에서 의결되게 됨.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본회의에서는 그대로 의결됨.)
  그리고 NABO가 어떤 기관과 국제적인 교류가 있는가와 관련하여, 우리가 다른 일부 해외 의회예산기구와 MOU를 체결하고 있음.
  일단 OECD회원국 중 NABO같은 의회예산기구를 가진 국가들은 매년 회의를 개최함. 매년 독립재정기구의 기관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서 각국의 예산재정 정책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임. NABO도 처음부터 이 회의에 참가하였으며, 작년에는 NABO가 서울에서 직접 이 회의를 개최하였음.
  그리고 미 CBO에 직원을 파견하여 기법 등을 배우고 있으며,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가 매년 한국을 방문하는데, 올 4월에 처음으로 NABO를 공식방문하였음. 무디스가 국가신용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국회의 중립적인 입장을 들어보려는 의도였음. 그리고 인도네시아, 몽골 등의 국가에서 한국을 방문할 때 NABO를 방문하여 면담함.

- [예산처 직원] 예산은 몇 년 단위로 편성, 심사하는지? 어떤 수입방식이 있는지?
- [추계세제분석관] 수입 중 제일 중요한 것은 국세임. 세금 이외에도 사회보장기여금이라고 해서 연금이나 국유재산 등을 팔거나 빌려주는 등, 국가 재원을 빌려주거나 하는 등의 수입, 벌금이나 과태료 등도 전부 세금 이외의 수입이 되고 있음.
- [정책분석관] 예산은 기본적으로 1년단위로 편성하고 심사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20년에 시작하는 5년단위 사업이 있는 경우, 2020년에는 그 5년 중 1년에 해당하는 예산을 심사하게 됨. 그리고 2021년에는 2020년 사업 경과를 지켜보면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게 됨.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과 심의는 1년 단위임.

- [예산처 직원] 해마다 예산이 5조원 정도 감액된다 했는데, 5조원 감액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조원이 축소되는지, 새로운 예산안에서 감액되는지?
- [정책분석관] 5조원 감액이라는 것은 그 해에 제출된 예산안에서 감액된다는 것.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평균적으로 그 정도 감액된다는 의미임.
- [기획예산담당관] 총지출 기준으로 국회에 들어온 내년 예산안은 514조원임. 이 중 의무지출이 약 50%, 재량지출이 약 50%인데, 의무지출이란 법령 등에 의해 지출이 정해져 있는 것임. 여러 요인에 의해서 증감 규모가 영향을 받음.

- [예산처 직원] NABO가 거시적인 경제 재정 전망을 하는데, NABO 외의 국가기관에서도 그런 거시 경제지표 전망을 하는 부서가 있는 듯한데 NABO와의 차이는?
- [추계세제분석관] 경제전망에 있어서 어떤 변수를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며, 그 변수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도 각 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각 기관이 그 전망을 하는 시기에 따라서도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상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NABO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어떤 변수를 어떻게 사용했고, 주요 기관들과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했는지도 같이 적어주고 있음.

그리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불가능한 일임. 어떤 전망을 해서 맞췄다고 해서 다음 번에도 맞춘다는 보장은 없으며 현실적으로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결산 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 [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 최근에 NABO에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재정전망을 실시하였음. 지금과 같은 제도로 가면 적립금이 언제 소진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음. 정부는 이에 대해 바로 반박하였음. 하지만 누가 맞는지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어떤 변수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정부는 기본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경향이 있으며 국회에서는 조금 더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전망할 수 있음.

  왜 민간이나 정부에서 전망을 하는데 NABO에서도 또 전망을 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 수도 있으나, 다른 기관의 정보를 그대로 갖다 쓰면 우리의 분석 결과가 틀릴 수 있기 때문임.

- [정책분석관] 예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라서 예산이 실제로 감액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NABO의 보고서는 신뢰도가 중요함. 따라서 NABO는 보고서 작성 시 100% 단서가 발견된 경우에만 지적함.

- [예산처장] 예산안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몇 개월이 걸린다고 했는데, 보고서의 시급성이 어떻게 되는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 [정책분석관] 몇 개월이 걸린다는 보고서는 우리가 프로젝트성으로 작성하는 기획보고서임. 매년 제출되는 예산 관련 보고서는 예산이 9월에 제출되고 10월 중순에 의원들에게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약 2개월의 시간밖에 없음.

- [예산처장] 한 해의 예산안이 편성되면 집행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몇 개월이나 걸리는지?

- [기획예산담당관] 법에 따라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기는 정해져있음. 시

간이 부족하므로 실제로는 국회에 제출되기 전부터 우리들은 분석과 평가에 착수함.

결산을 통해서 나온 문제점들이 예산안 편성 시 반영되어야 하므로 중요함. 결산에서 어떤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그 예산은 조정이 되어야 함.

처장님께서 얘기한 성과 관리는 한국에서도 중요한 과제임. 비용을 집행하였으나 본래 의도나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성과적이라고 볼 수 없음. 정부는 예산안 편성 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다음 결산 때는 그 지표가 제대로 달성되었는지를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성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함. 가령 예산 집행을 다 했더라도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예산을 감액하거나, 제도개선이 뒤따르게 됨.

3 우즈베키스탄 의회예산처 설립 관련 초청세미나 2일차

❑ 세미나 2일차 개요

○ 일시: 2019. 10. 10.(목) 10:00~16:00

○ 장소: 타슈켄트 법학대학 세미나실

○ 주요 참석자

- Mr. Doniyor Turaev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처 처장대리
- Mr. Komiljon Ernazarov 우즈베키스탄 의회예산처장
- Ms. Nargiza Abdukadirova, WFD 우즈베키스탄 대표

○ 통역: 한-우즈벡 동시통역

❑ Role of NABO in supporting MPs in financial oversight – 조흥연 정책분석관

○ 주요 자문내용(주요 분석사례)

-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환경개선유지 사업
- 국방방통융합서비스(IPTV)사업 예산의 적정성 문제
- 국립극단 법인화 추진 사업 규모 조정 필요
- 시·도 가축방역사업: 법률의 제·개정을 전제로 예산안 편성
- 숲가꾸기 사업의 법령상 기준보조율 위반
- 집행 잔액을 연도 말에 불요불급한 용도로 집행
- 사업실패에 따른 예산낭비

- 법령에 위반하여 분담금 미징수
- 부적정한 성과지표 문제
- 문체부와 환경부의 생태녹색관광 육성 사업 중복추진

○ 주요 질의응답

< 숲가꾸기(3103-212) 사업의 법령상 기준보조율 위반 관련 >

- [조사처장 대리] 보조율이 40%라고 법으로 되어있는데, 요구사항이 50%인 경우 조율을 할 수 있는지?
- [정책분석관] 40%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예산만을 바꿀 수는 없음. 예산을 늘리고 싶으면 법을 개정해야 함.
- [기획예산담당관] 한국의 예산집행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법령에서 보조금의 비율을 기재부가 정하고 있음.
- [정책분석관] 40%인데 50%를 편성해온 것은 정부관계자가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을 수 있음.

< 법령에 위반하여 분담금 미징수 관련 >

- [예산처 직원] 3년이 지났음에도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이 왜 발생했는지? 3년 면제가 되었고 그 사업을 폐쇄를 했는지, 결과를 알고 싶음.(예산을 축소를 했는지?)
- [기획예산담당관] 정부입장에서는 부담금 징수를 3년간 면제해주었는데, 계속해서 부담금을 면제해주려 했으면 법령을 개정했어야 함. 이런 당연한 절차를 무시하고 부담금을 면제해서 문제임.

< 기타 >

- [예산처 직원] 예산이 도중에 변경되는 경우, 국회에서 컨트롤 하는지, 기재부의 결정으로도 변경 되는지?

- [정책분석관] 기재부에서 결정하고, 국회는 사후적으로 결과만 따짐. 사후적으로 국회의 심판을 받음.
- [추계세제분석관] 한국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고, 그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며, 집행은 전적으로 정부의 역할이며, 그 집행을 평가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임.
- [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예산의 변경은 기재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하고, 이를 전용이라고 함. 연중에는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당부당은 국회에서 따지는 것임.

- [예산처 직원] 정부부처 외에 비정부기구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도 분석하는지?
- [추계세제분석관] 그 기관이 국가보조금을 받는 곳이면 분석할 수는 있음. 다만, 현실적으로 분석 대상이 워낙 많으므로 분석하기 힘들 수도 있음.
- [기획예산담당관] 재정이라는 것 자체가 공공기관이 하는 것이고, 영리/비영리를 떠나서 그 단체가 보조금을 받는다면 검토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음. 보조금을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회수하고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시하는 것은 해당 부처의 역할이고, NABO는 그것을 다시 한번 분석하는 것임.

❑ Fiscal Estimates & Tax System Analysis - 이상홍 추계세제분석관

○ 주요 자문내용(주요 분석사례)

- 인건비 ,기본경비, 임차료, 토지매입비, 건축비, 자격급여 등 추계 방법

○ 주요 질의응답

- [예산처장] 지방예산 편성 등에 대해서 궁금함.
- [추계세제분석관] 기본적으로 말하겠음. 국가에서는 국가재정을 담당하고 지방

재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필요한 예산을 국회와 비슷한 형태로 편성함. 국회가 그걸 감독하거나 하는 수직적인 관계는 아님.

- [예산처장] 예를 들어, 구역별 학교가 있는데 학교 예산은 교육부에서 검토하는지 지자체에서 검토하는지?
- [추계세제분석관] 교육은 시도별 교육청이 있고 그 교육감(선출)이 관리하게 됨.
- [예산처장] 학교마다 돈은 어디서 받는지?
- [추계세제분석관] 교육부에서 받음.
- [예산처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는 예산이 필요하면 재정부에서 정해주고 교육부에서 받으면 됨. (유치원은 시도교육청에서 받음.) 우즈벡에서는 학교나 유치원들의 예산을 편성하는 재정부의 작은 기관이 지방마다 있어서 거기에서 편성함.
- [정책분석관] 한국은 교육청이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해서 기재부에서 심사하여 규모를 정하여 편성을 하고, 나중에 집행 시 돈을 나눠주는 것.
  한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이 독립된 체계임. 한국도 예전에는 중앙과 지방이 하나의 체계였으나, 지방자체제도를 통해 독립을 시켰음. 예전과 달리 지방에서 별도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함.
- [예산처 직원] 국세는 서울시에서만 내고, 지방세는 지방에서만 내는 것으로 이해됨. 지방재정의 수입, 국가재정의 수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 [정책분석관] 지역별로 세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함.
- [추계세제분석관] 지방재정 전체가 지방에서 걷어들이는 세금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국세가 78% 지방세가 22%이므로 지방세만 가지고 지방을 움직일 수는 없음. 따라서 국세 중 일부를 지방으로 내려주며, 지역 간에 편차가 있으면 그 내려주는 돈을 조절하여 편차를 줄여줌.
- [예산처 직원] 지방의 경우에는 어떤 비용을 자기가 책임지고(스스로의 힘으로만) 내는지?
- [정책분석관] 정해져있음. (예를 들어, 도로는 지방이, 고속도로는 국가가 담당)

- [조사처장 대리] 예를 들어, 부산시의 공장에서 걷는 세금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 [추계세제분석관] 국세는 14가지(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가 있음.
- [예산처 직원] 소득세는 대략 얼마정도 떼는지?
- [정책분석관] 1,200만원 이하는 6%, 4,600이하는 15%, 8,800이하는 24%, 1억 5천만 이하는 35%, 3억 이하면 38%, 5억원 이하 40%, 5억 초과는 42%임.
- [예산처 직원] 소득이 커질수록 소득세도 커짐. 지하경제가 커지는 영향을 추래하진 않나?
- [정책분석관] 회사월급은 국가에 다 보고되므로 그럴 가능성 없음. 다 전자적으로 이루어짐.
- [예산처 직원] 국민의 대부분은 어떤 세금을 많이 내는지?
- [정책분석관] 주로 소득세를 가장 많이 내고, 집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도 많이 냄.
- [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다양한 세금감면제도도 있어서(인적공제 등) 소득세율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교육비, 의료비, 카드사용액에 따라서도 감면해주기도 함.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 전자적으로 소득이 드러나므로 지하경제에 속할 수 없음.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욕구가 있으므로 현금결제를 요구하기도 함. 따라서 소비자에게 카드 결제의 경우에 공제 혜택을 주는 것임.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둘 다 공제가 됨.
- [예산처 직원] 한국에서 체크카드 면제는 몇 %인지, 신용카드는 몇 %인지?
- [정책분석관] 연간소득액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한 경우에 25%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공제를 해줌.
  지하경제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음.

❑ Economic Outlook & Policy Analysis - 이상홍 추계세제분석관

○ 주요 자문내용(주요 분석사례)

- 장기재정전망의 특징과 방식
- 재정전망의 항목별 전망방법: 총수입, 총지출 등
- 재정전망의 주요결과

○ 주요 질의응답

- [예산처 직원] 의료복지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 [추계세제분석관] 보건복지 같은 부분은 성과를 내기 힘든 부분임. 성과지표를 만들기 어려운 것도 사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중임.
- [정책분석관] 의료 복지 같은 것은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사실 자체로도 성과라고 볼수 있기도 함.

- [예산처 직원] 한국의 자살률이 높은데 관련 사업의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는지? 보건복지부 예산이 사업이 얼마나 집행되는지? 성과가 통계자료로만 확인이 되는지?
- [정책분석관] 정부의 모든 사업이 성과가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님.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방하는 부분도 있음.

- [예산처장] 우즈벡 예산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지?
- [기획예산담당관] 국회의 예산심사기간은?
- [예산처장] 금융부에서 편성해서 내각실로. 내각실에서 국회 하원에 줌. 하원에서 상원으로 12월 25일까지는 대통령 승인.(법으로 규정된 건 아님 / 2020

년부터는 법으로 제정될 예정임.) 상원은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별 담당 대표들이 있음. 하원에서 삭감한 예산이 상원에서 변경되거나 함. 하원이랑 상원은 삭감만이 아니라 증액도 하며, 정부에서 제안하는 예산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음. (예를 들어, 작년에 법학대학 예산 편성 시 장학금 증액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부정적으로 판단했음.)

- [기획예산담당관] 결산심사는?
- [예산처장] 결산은 분기별로, 연단위로 검토함. 금융부에서 결산자료를 취합하여 중앙정부에 주고, 중앙정부에서 국회에 5월 15일까지 전달함.
- [기획예산담당관] 2019년도 우즈벡 예산규모는 어느정도인지?
- [예산처장] 총수입은 약 121조 8300억 숨(한화 약 12조원), 총지출은 약 129조 6253억 숨(한화 약 13조원)정도임.
- [기획예산담당관]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경우 어떻게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지?
- [예산처장] 국채발행 등을 통해 충당함.

❑ 마무리

- [조사처장 대리] 이틀동안 한국의 재정 전문성과 투명성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음. 한국에서 NABO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배울 수 있었음. 세미나를 같이 해서 즐거웠고 우즈벡 재정 관리와 운영에 큰 뒷받침이 될 것이라 생각함. WFD에도 감사함. 새로 설립됩 예산처와 조사처가 한국 NABO를 방문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음.

- [예산처장] 이틀간의 세미나 감사함. NABO의 역사와 기능, 한국 재정관리 시스템을 자세히 알 수 있었음. 이틀을 통해 NABO의 활동과 한국 재정편성 및 결산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가예산은 국민의 것이라는 것임. 국민의 세금

과 국민의 돈을 함부로 쓰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음. 모든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하고, 성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음. 우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기준과 경험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림. 앞으로도 NABO와 계속적인 협력을 하고 싶으며 한국에 직접 가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음.

- [WFD 담당자] WFD를 대표해서 한국에서 참석해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함. 앞으로도 WFD가 우즈벡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있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NABO와 협력을 하고 싶음. 앞으로도 재정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NABO에 배울 점이 많음. 다시 한번 모두 감사드림. 앞으로도 유사한 프로젝트와 세미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함.

4 한국산업인력공단 우즈베키스탄 EPS-Center 방문

❑ 면담 개요

○ 장소: 한국산업인력공단 우즈베키스탄 EPS-Center 회의실

○ 방문일시: 2019.10.11.(금) 11:00

○ 주요 참석자

- 송상진 EPS-Center 센터장

❑ 주요면담내용

○ 한국산업인력공단 우즈베키스탄 EPS-Center 기관현황

- [기획예산담당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우즈베키스탄 EPS-Center는 언제,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 [센터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우즈베키스탄 EPS-Center는 2006년 한국 노동부와 우즈벡 노동사회보장부 간 MOU 체결에 따라 2007년 설립되었음. 직원은 센터장과 계약직원 2명이 전부임. 시설은 사무소 1개 및 시험장 2개로 구성됨.
- [기획예산담당관] 센터가 담당하는 업무는 주로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 [센터장] 주로 한국에서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우즈벡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하고, 구직 등록, 근로계약 체결 및 사전취업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비자 발급 및 입국 후 사업장에 배치하는 절차로 이루어짐.

○ 주요 사업실적 및 현황

- [기획예산담당관] EPS-Center의 주요한 사업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 [센터장] 센터에서 주관하는 한국어시험 및 기타 기능시험의 총 누적 응시자 수는 2018년 말까지 약 15만명임.
  2018년 작년의 유효구직자 수는 총 722명(남성 715명, 여성 57명)임.
- [기획예산담당관] 한국어능력시험 이외에도 주관하고 있는 선발절차가 있는지?
- [센터장] 선발포인트제가 있음.
  선발포인트제란 한국어 외에 신체적 조건, 기능수준 등 개인의 능력을 종합 평가하여 직무능력이 좋은 성실한 근로자를 선발하는 제도임. 1차로 기존의 한국어능력시험을 본 뒤, 2차로 직무능력평가를 실시할 예정임. 작년부터 처음 실시하였음.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차원에서 운영상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 [센터장] 2018년도에 송출국(우즈벡) 자체 예산으로 CBT(한국어능력컴퓨터시험) 시험장을 추가로 확보하였음. 시험실 추가 확보로 적기에 구직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됨. 시험실 설치예산 전액을 우즈벡 정부에서 확보하게 되어 약 3억원 절감 추정됨.

5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방문

❑ 면담 개요

○ 장소: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회의실

○ 방문일시: 2019.10.11.(금) 12:00

○ 주요 참석자

- 오기열 한국교육원 원장
- 장형기 한국교육원 부원장

❑ 주요면담내용

○ 한국교육원 기관현황

- [기획예산담당관] 한국교육원은 언제,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 [원장] 한국교육원은 현재 전세계에 약 40개가 설치되어 있음. 타슈켄트 한국교육원은 1992.5.27. 교육부에서 설립하였음. 현 오기열 원장은 2018.8.21.에 부임했음.
- [기획예산담당관] 조직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 [원장] 교육원이 소재해있는 이 건물은 교육부 소속임. 원장 및 부원장은 교육부 파견 직원이며, 현지 직원 포함 총 39명이 근무하고 있음. 교육원의 시설은 강의실 등 55실이 있으며, 2019년도 예산은 총 470,222달러임.

○ 주요 사업실적 및 현황

- [기획예산담당관] 한국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원장] 크게 보아 한국어강좌, 한국어보급 사업, 문화보급 사업 등이 있음.
  첫 번째로, 한국어강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운영을 하며, 연 3,700여명이 수강함. 전면 무료 교육이라서 인기가 많아 입학 시 약 3:1의 경쟁률을 보임.
  두 번째로, 우즈벡 각급 학교에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넣도록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중임. 이를 위해 각급 학교용 교과서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전통놀이 등 한국문화행사를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음. 글짓기, 노래자랑, 동아리운영 등을 하고 있음.
- [기획예산담당관] 우즈벡에서 한국으로 오는 유학생도 많은지?
- [원장] 한국에 방문한 우즈벡 유학생이 현재까지 약 9,66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한국교육원에서 유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유학 박람회/설명회 등을 개최하기도 함.
- [기획예산담당관] 한국교육원에도 한국어능력시험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오전에 방문한 EPS-Center에서도 한국어 시험이 있음. 둘은 다른 시험인지?
- [원장] 한국교육원의 한국어시험은 고용을 위한 EPS-Center의 시험과 별개임. 한국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은 연 4회 실시되며, 2019년 응시자는 약 8,300여명이 될 예정임. 내년엔 5회를 실시할 예정임.

○ 면담 종료 후 한국교육원 현장시찰 실시

- [기획예산담당관] 교육원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보임.
- [원장] 현 한국교육원 건물이 지난 1966년 타슈켄트 대지진 당시 거의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고 남은 기숙사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 오래 됨.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2020년도 예산을 요청했으나 편성 과정에서 절반만 반영되었음. 우즈벡 국민들이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많은 만큼,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시설과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길 바람.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 안에 가시가 돋는다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우즈벡 의회예산처(PBO)는 WFD의 권고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지시로 7월 설립되었으며, 기관장은 현직 국회의원임

○ PBO 정원 11명 중 현재 5명을 채용한 상태이며, 주로 재무부 출신임. 구체적인 직무와 향후 기관운영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임.

○ 세미나 참석자들은 NABO의 업무와 성과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NABO도 우즈벡 의회를 파트너로 대외협력 차원에서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판단함.
다만, 대통령이 상원의장을 임명하는 등 대통령 등 행정부 권한이 입법부에 비해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우즈베키스탄 의회예산처가 NABO와 같은 재정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함.

○ WFD 측은 세미나에 만족을 표시했고, 오는 12월 PBO 직원의 NABO 연수를 요청함.

Ⅳ. 참고자료

1 공식초청서한(Invitation letter)

WESTMINSTER FOUNDATION FOR DEMOCRACY

Artillery House, 11-19 Artillery Row,
London, SW1P 1RT, United Kingdom
T +44 (0) 20 7799 1311
F +44 (0) 20 7799 1312
www.wfd.org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Republic of Korea

30 September 2019

Invitation letter

Dear Sir/Madam,

Westminster Foundation for Democracy (WFD) has the honour to present its complements to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vite your specialists to support our parliamentary programme in Uzbekistan.

One of the key components of WFD's current programme in Uzbekistan is providing technical support to the Office on State Budget of the Oliy Majlis (parliament) of Uzbekistan to improve how the state budget is reviewed, adopted and monitored. WFD will be conducting meetings at the Oliy Majlis and a two-day seminar for the Office on State Budget on **8-10 October 2019** and we would like to invite specialists from NABO to Tashkent to facilitate this workshop.

WFD is a non-departmental public body supported by, but independent of, the UK's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an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The remit of WFD is to support and strengthen multi-party democracies working closely with elected representatives and parliaments. WFD engages with national and provincial parliaments and as part of this process we provide international experts.

We are looking forward to welcoming you to Tashkent in October.

Yours faithfully,

C. Levick

Chris Levick
Regional Director
Europe and Central Asia
Westminster Foundation for Democracy
E: chris.levick@wfd.org

2 세미나 개최 우즈베키스탄 뉴스 방송

- 보도언론: National TV channel Uzbekistan 24
- 보도화면 링크: https://www.facebook.com/Qonunchilikmuammolariinstituti/videos/440633279915881/

3 담당자 연락처

REPUBLIC OF UZBEKISTAN
OLIY MAJLIS
LEGISLATIVE CHAMBER

Komiljon Y. ERNAZAROV

Member of Parliament

1, Bunyodkor avenue,
Tashkent, 100035

Phone: (998-71) 239-65-67
e-mail: [redacted]

LEGISLATION AND PARLIAMENTARY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OLIY MAJLI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Doniyor B. TURAEV
Deputy Director

Tashkent city, 100035,
1, Bunyodkor shokh kucha,
Phone: +998 71 239-36-70

Mobile: +998 93 509-88-19
E-mail: d.turaev@lpri.uz
d.b.turaev@gmail.com

WESTMINSTER FOUNDATION FOR DEMOCRACY

Nargiza Abdukadirova
Country Representative, Uzbekistan

T.: +998 71 280 1060
E: nargiza.abdukadirova@wfd.org
70, Mustaqillik Avenue, Tashkent, 100000, Uzbekistan

Legislation and Parliamentary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Oliy Majli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AKILOV ALIMJON RAHIMOVICH
Chief Researcher
of the department on theory of legislation and comparative law

Tashkent city, 100035,
Bunyodkor avenue, 1

Phone: (+99871) 239-86-72
Mob.: (+99890) 189-00-12
E-mail: mrakilov@bk.ru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부속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원장 오 기 열
(Oh Ki Youel)

100005, 타슈켄트시, 미라바드 구역, 탈리마르존 거리, 3번지
Tel: +998(71)-2918182(3)
M.P: +998(94)-6629410
E-mail: okedamaru@gmail.com
http://www.tashkec.uz

HRD KOREA
EPS Center in UZBEKISTAN

Director
Song, Sang-Jin

3, Talimarjon St., Mirabad district, Tashkent, Uzbekistan
Tel: +998-71-291-9545
Mobile: +998-90-329-3822
Fax: +998-71-291-9545
E-mail: [illegible]

4 우즈베키스탄 관련 자료

1. 개 관

가 약 황

❑ **수 도** : 타슈켄트(Tashkent, 246.4만명)
❑ **위 치** : 중앙아시아
❑ **면 적** : 447,400㎢(한반도의 약 2배)
❑ **인 구** : 3,240만명('18) (중앙아 최대)
❑ **기 후** : 고온건조한 사막성 기후
❑ **민 족** : 우즈벡인(81%), 러시아인(5.5%), 타직인(5%), 카자흐인(3%), 카라칼팍인(2.5%), 고려인(0.6%)
❑ **언 어** : 우즈베키스탄어(공식국어), 러시아어(통용어)
❑ **종 교** : 이슬람교 88%(수니파 70%), 러시아 정교 9%, 기타 3%
❑ **국가 독립** : 91.8.31 독립선언, 91.9.1 독립기념일
❑ **정부 형태** : 대통령중심제(임기 5년)
❑ **의 회** : 양원제(상원 100석, 하원 150석, 2019.2월 총선 예정)
❑ **정부 주요인사**
- 대통령 :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 상원의장 : 나르바예바(Tanzila Narbaeva)
- 하원의장 : 이스마일로프(Nurdindjon Ismailov)
- 총리 : 아리포프(Abdulla Aripov)

❑ **주요 경제지표**
- GDP(2017) : 385억불(EIU), 1인당 GDP : 1,262불
- 경제성장률(2018): 5.1%
- 교역(2016) : 207억불 (수출 75억불, 수입 132억불)
  ※ 주요수출품 : 천연가스, 석유, 면사
- 주요자원(확인매장량) : 원유(6억배럴), 가스(1.2조㎥)금(1,800톤)
- 화폐단위 : 숨(Sum) / (US $1≒9,000숨)(2019.8)

아랄 해
카자흐스탄
카라칼파크
자치공화국
누쿠스
침켄트
티샤우스
베루니
우르겐치
투르트쿨
치와
치르치크
타슈켄트
키르기스스탄
앙그렌
나맘간
안디잔
오슈
우즈베키스탄
굴리스탄
알말리크
벨르가나
투르크메니스탄
부하라
카간
카타쿠르간
지자크
사마르칸트
차르조우
카르시
타지키스탄
두샨베
데나우
테르메스
아프가니스탄
©1998, Encyclopædia Britannica, Inc.

러시아
아스타나
카자흐스탄
자이산 호
발하슈 호
아랄 해
알마티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
카스피 해
우즈베키스탄
비슈케크
타슈켄트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두샨베
아슈하바트
타지키스탄
중국
테헤란
카불
아프카니스탄
이슬라마바드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페르시아 만
파키스탄
뉴델리
네팔
카트만두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만
아랍에미리트
오만

나 정치체제

o 1991년 독립 이래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유지
- 우즈베키스탄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군통수권, 주요 인사 임면권, 비상사태 선포권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국정 전반에 큰 영향력 행사
-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1회 연임 가능

※ 대통령 임기: 독립 초기 5년 → 2002.1. 7년으로 연장(개헌) → 2011.12. 5년으로 단축

o 카리모프 초대 대통령(1991.12~2016.9)은 독립 초기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가의 기틀을 잡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여 국민의 높은 지지를 향유
- 특히, 세계적으로 경제불황을 겪던 2007년 이후에도 약 10년 간 연간 7~8% 수준의 고도 경제성장을 유지하여 국민적 지지를 확보했으며, 국내 정치세력 간 균형의 유지를 통해 정치적 안정 도모

o 카리모프 초대 대통령 서거(2016.9.2) 후 미르지요예프 당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하였으며, 2016.12.4 압도적인 득표율(88.61%)로 대통령에 당선

o 미르지요예프 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거친 광범위한 개혁 추진
- 미르지요예프 정부는 전임 카리모프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즈벡 국가·사회의 중장기적 발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광범위한 국정 개혁 추진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국정개혁 실시를 위해 「2017-2021 우즈베키스탄 발전 심화를 위한 행동전략」을 채택하고

(2017.2) 매년 중점 과제를 제시하며 실질적인 성과 거양

o 미르지요예프 정부의 국정개혁은 국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높은 국민적 지지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안정적 기반 위에 국정개혁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

다 경제체제

o 1991년 독립 이후 원자재 수출 국가에서 상품 수출을 지향하는 산업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현대화 및 다변화를 통한 생산기반 확충, △수입대체 산업 육성 정책 시행
- 석유화학, 자동차, 건축자재, IT 및 전자, 섬유, 농산물 가공을 수입 대체 ·수출 역점 분야로 추진
- 국내 경제시스템 개혁 및 국제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도 5%대의 견고한 성장세 지속(2018년 5.1%)

o 천연가스 등 원자재의 단순한 직접적인 수출에서 벗어나 선진 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과 협력하여 현지 가공율을 높인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을 통한 수출을 지향
- 수르길 가스화학 프랜트(한국가스공사, 롯데케미컬, GS E&R), GTL 플랜트, 칸딤 가스처리 플랜트 등

o 우즈벡 미르지요예프 新정부의 경제정책
- 종전의 점진적 시장개방 및 외환규제 정책에서 탈피하여 신속한 경제개방·자유화를 통한 경제 선진화 추진
- 『2017-2021년간 우즈베키스탄 발전 심화를 위한 5대 행동전략』을 수립(2017.2)하여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대대적인 제도개혁 추진

- 1994년 WTO 최초 가입신청 이후 중단되었던 가입작업을 재개하고, 2017.11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방한 계기 우리나라와 WTO 가입 지원 MOU를 체결하는 등 WTO 가입에 적극적 태도 시현
- 2017.9 외환자유화 및 환율단일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환개혁 단행
- 외환자유화 영향 완화를 위해 세계은행, ADB 등의 대규모 차관 도입을 추진하고, 2017.11 EBRD 사무소 개설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

라 자원현황

o 우라늄, 금, 동, 아연 등 100여종의 풍부한 광물 부존량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수년간 철, 망간, 석탄, 셰일오일, 희토류 등에 대한 지질탐사와 금, 우라늄 등에 대한 새로운 기법의 탐사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확인 매장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
- 광물 생산량은 우라늄이 연간 2,400톤으로 세계 7위(세계 총생산량의 약 6%), 금이 연간 100톤으로 세계 9위(세계 총생산량의 3.5%)

o ADB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 태양광 잠재력은 연간 510억 TOE이며, 연평균 일조일수가 300일 이상으로 태양광 발전 잠재력 다대

※ TOE : 톤, 배럴, ㎥, KW 등 여러 가지 단위로 표시되는 각종 에너지원들을 원료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 1TOE는 원유 1톤(7.41배럴)의 발열량 1,000만 kcal가 기준이 되며, 석탄은 1.55톤, 천연가스 1,150㎥ 에 해당

※ 우즈베키스탄의 태양광 잠재력은 510억TOE이나 현재 기술로 사용가능량은 연간 1.77억 TOE

o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단순한 자원 수출국에서 현지 가공율을 높인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국으로의 변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외국기업과 협력 확대

- 수르길 가스화학 플랜트(한국가스공사, 롯데케미컬), GTL 플랜트(남아공 Sasol), 칸딤 가스처리 플랜트(러시아 루코일) 등

마 대외정책

o **(중립/균형외교정책 기조)** 카리모프 전 대통령 시절 △정치동맹 불가입, △외국 군사유치 불가, △우즈벡 군 해외 파병 불허 유지 등 중립주의적 외교정책 및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 간 균형외교를 추구하였으며, 미르지요예프 정부도 이러한 기조를 계승

o 미르지요예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인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을 대외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

- 2018.3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이니셔티브에 따라 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Consultative Meeting among Heads of Central Asian countries)가 아스타나에서 성공적으로 개최, 중앙아 국가들간 새로운 협력의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 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2018.3.15. 아스타나)
- 참석 현황 : 정상 참석(카자흐/키르기즈/타직/우즈벡), 국회의장 참석(투르크)
- 공동성명 채택 : ①역내 안보·안정·지속가능 개발을 위해 역내협력 ②역내 무역·투자 및 산업다변화 등 협력 ③중앙아 5개국 국민간 상호 우호관계 심화 등 의지 표명

o 주요 교역국이자 투자국인 러시아, 중국과는 에너지, 교통, 군사, 인프라 등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략적 협력 확대

o 미르지요예프 정부 출범 이후 인권보호 및 법치주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정개혁의 성공적 실시, 아프간 문제 해결을 위한 우즈벡 정부의 주도적 노력 등을 계기로 미국/EU와의 실질 협력 관계가 강화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IMF, WB 등 국제금융기구와도 협력 제고

- 2018.5월 우즈벡 대통령으로는 16년 만에 미국을 공식 방문

바 의회현황

o 의회는 상·하원 양원제(독립 초기 단원제였으나 2005.1월부터 양원제로 개편)

- 상원은 14개 광역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각 6명)되는 84명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16명 등 100명(정당 무소속)으로 구성
- 하원은 지역구에서 선출된 135명과 환경 전문가 15명(대통령과 14개 광역자치단체가 각 1명씩 지명) 등 150명으로 구성(정당 소속)

※ 정당 현황 : 총 5개의 정당이 활동 중이며, 모두 친정부 성향

- 자유민주당: 38석, 인민민주당 21석, 민주당 31석, 사회민주당 17석, 생태운동그룹 13석

※ 광역 자치단체: 12개 주, 1개 특별시(타슈켄트), 1개 자치공화국 (카라칼팍스탄공화국)

	상원	하원
임기	5년	5년
의원 숫자	100명	150명
정당	정당 비소속	정당 소속(4개 정당 활동중)
선출 방식	1. 지역대표 84명(14개 광역 지방 의회에서 각 6명 선출) 2. 직능대표 16명(대통령 지명)	1. 국민 직접선거 150명(지역구) 2. 그간 환경전문가 15명은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되었으나 2019년초 환경전문가 의석 할당 폐지
의장단	의장: 나르바예바(NARBAEVA Tanzila) 제1부의장: 사파예프(SAFOEV Sodiq) 부의장: 아르티코바(ARTIKOVA Svetlana) 부의장:에르니야조프(ERNIYAZOV Musa)	의장: 이스마일로프(ISMOLILOV Nurdinjon) 부의장: 오타무라도프(OTAMURADOV Sarvar) 부의장: 케트모노프(KETMONOV Khatamjon) 부의장: 우마로프(UMAROV Nariman) 부의장: 알리호노프(ALIHONOV Boriy)

o 의회의 권한

- 상원/하원 합동: 입법권, 예산심의권, 조약 및 국제협약 비준권, 총리 임명 승인권
- 상원: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선거권, 검찰총장·국가안보청장 임명 승인권, 대통령이 지명한 외교사절·중앙은행 총재 임면권, 대통령 유고시 상원의장이 대통령 권한 대행
- 하원: 정치·경제·사회 및 대내외 정책 관련 결의 채택권, 총리의 각료 임명제청 전 승인권

2. 한-우즈베키스탄 관계 현황

한-우즈베키스탄 관계 요약

<역사적 관계>

□ 한국민족과 우즈벡 민족은 1,400여년 전부터 실크로드를 통해 교류

○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의 7세기 '아프로시압' 벽화에 고구려 사신 묘사

<양자관계 일반>

□ 1992년 수교 이래 우즈벡은 중앙아 내 한국의 핵심 우방국

○ 총 16회의 정상회담(15회 교환방문)을 통해 호혜적 협력관계 발전

○ 2006.3월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2019.4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외교) 북핵문제 및 대북정책에서 일관되게 한국입장 적극 지지

□ (경제) 한국기업의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 참여를 넘어서 우즈벡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전반적인 협력을 추진중

○ 우즈벡은 중앙아 내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한국은 우즈벡의 제5위 교역 대상국)

□ (문화·공공외교) 한국의 문화콘텐츠, 상품, 음식 등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우즈벡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확대중

□ (고려인) 우즈벡에 거주하는 18만 고려인 동포(CIS 국가 중 최다)는 양국관계 발전에 가교 역할

<지정학적 가치>

□ 유라시아 대륙 중심부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내 新북방 정책의 주요 협력 대상국이자 외교 다변화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

가 양국 관계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 내 우리나라의 핵심 우방국이자 최대의 교역 대상국으로서 1992.1월 수교 이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꾸준히 우호 관계를 발전, **2006.3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2019.4월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

❑ 양국 우호관계는 △정상 간 우의와 신뢰 △호혜적 실질협력 △정서적·문화적 유대감 △우즈베키스탄 내 18만 고려인 사회의 존재를 통해 강화

❑ 특히,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양국 실질협력이 추동

o 수교 후 27년 간 16회의 정상회담 개최(정상 간 상호방문 15회, 2008.8월 베이징 올림픽 계기 정상회담 1회)

o △2017.11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국빈방한은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2019.4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문은 양국 우호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고 미래지향적 양국 실질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 교육·보건의료·공공행정 등 미래지향적 실질협력 필요성 등으로 인해 우호관계 강화

o 우즈베키스탄은 우리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대상국이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여러 계기에 우즈베키스탄의 바람직한 발전 모델로 한국의 사례를 언급

❑ 2018년 기준 한-우즈베키스탄 교역량은 21.4억불로 중앙아 내 최대 교역 대상국이며, 우즈베키스탄은 ODA에 있어서도 중점 협력대상국

o 對우즈베키스탄 투자 누적액은 약 6.9억불

나 경제협력 현황

❑ 교역 현황

○ 2018년 양국간 교역 규모는 21.4억불로,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의 5번째 교역 대상국

- 양국간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해 오다 2015년 러시아발 경제 침체 영향으로 인해 크게 줄었으나 2017년부터 회복세 시현

○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부품, 건설중장비, 산업기자재 등이며, GM-Uz 증산에 따른 자동차부품 수출과 대형 플랜트 건설 진행에 따른 기자재 수출이 증가

○ 주요 수입품목은 면린터·펄프, 면사, 면직물, 과실류 등이며, 우즈베키스탄의 농산물 수출확대 정책에 따라 과실류 수입이 증가

<한-우즈베키스탄 교역규모 추이> (단위: 백만불,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
총교역	2,021	2,060	1,300	949	1,198	2,139	78.5
수 출	1,968	2,033	1,284	928	1,180	2,117	79.4
수 입	53	27	16	20.7	18	21.9	21.0
수 지	1,915	2,006	1,268	907	1,162	2,095	80.2

* 자료 : 무역협회 K-stat

❑ 투자 현황

○ 우리나라의 對우즈베키스탄 투자는 1992년 수교 이후 2018.9월까

지 누적 304건, 6.9억불 기록(실투자금액 기준)

- 업종별로는 △제조업 130건, 4.38억불, △부동산·임대업 18건, 5,633만불, △광업 8건 4,692만불, △정보통신서비스업 8건 4,103만불, △금융보험업 10건, 3,597만불 등

※ 주요 투자사례: 대우텍스타일(1996, 방적), 우즈동양(1996, 자동차부품), KDB-Uz(2006, 금융), 이스트텔레콤(2008, 인터넷) 등

다 재외국민 현황

❑ 약 3,000여명(재외국민등록 기준)

o 우리 기업 주재원 및 근로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

※ 우리 기업이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투르크멘바쉬에 300여명 거주

❑ 최근 우즈베키스탄 내 대형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2018.2월부터 한국인 단기 관광객에 대한 비자면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거주교민 및 단기 출장자·여행객 등의 급증 예상

※ 진출기업 수 : 약 636개 (2018.12월말 우즈벡 정부 등록 기준)

- 대우인터네셔날,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롯데케미컬, 가스공사, 석유공사, 산업은행, 대우인터내셔널, GS건설 등

※ 한국 등 7개국 단기(30일 이하) 관광객에 대한 비자면제 제도 시행(2018.2)

- 한국, 일본, 터키,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 우즈베키스탄 국민(고려인 동포 포함)과의 국제결혼이 꾸준히 성사됨에 따라 당지 거주 다문화 가정도 증가추세에 있는 바, 한국유치원 및 주말한글학교 지원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한글교육 등 실시중

※ 한-우즈베키스탄 간 인적교류 현황
- 우리 관광객 우즈베키스탄 방문(2018): 27,269명
- 국내 체류 우즈베키스탄 국민(2018.12): 68,433명(불법체류자 6,162명 포함), 국별 순위 5위
- 한국 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2018.12): 7,840명, 국별 순위 4위

라 고려인동포 현황

❑ 현황 및 연혁

ㅇ 우즈베키스탄 내 고려인은 약 18만 명으로 CIS(총 50만명) 국가 중 최다

❑ 주요 고려인 동포 단체 현황

ㅇ 타슈켄트 소재 중앙고려문화협회를 중심으로 각 지방 고려문화협회 활동 중

※ 고려문화협회 (1991.11 창설, 회장 : 박 빅토르)
- 1991년 우즈벡 총리실 산하 소수민족 문화부흥 지원센터에 고려인 대표단체로 공식 등록

ㅇ 고려문화협회 산하 「고려신문」(1997.9 창간), 「고려 가무단」(1985.5 창

설), 「학자 협회」(1992년 설립/회원 235명) 설치

❑ 우즈벡 고려인 주요 활동

○ 우즈벡 고려인은 양국 관계 발전에 가교 역할

○ 현재 상원의원 2명 및 하원의원 1명이 재임하고 있으며, 2017.10 「신 아그리피나」 상원의원이 초대 유아교육부 장관에 임명되는 등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의 위상 제고

- 이외 리 드미트리 국가프로젝트청장, 박 드미트리 화학공사 부사장, 펜 비탈리 주한대사, 박 뱌체슬라프 재무차관 등이 우즈벡 정부 고위 인사로 재직 중

※ 구소련 시절부터 고려인들은 근면성실하고 교육열이 높으며,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를 가진 사람들로 인식되었으며, 우즈벡 지도층에서도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는 근거로 작용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비롯한 대부분의 고위층들은 가까운 고려인 친구가 있으며, 이들 덕분에 한국을 더욱 가깝게 느끼고 있다고 자주 언급

❑ 고려인 사회 지원 현황

【방문 취업제】

○ 고려인 동포 2-4세대의 모국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로서 2018.12월말 기준 19,693명의 고려인 동포가 동 제도를 통해 한국에서 활동 중

【고려인 80주년 기념비 제막】

○ 2017.7월 재외동포재단의 지원 등을 통해 고려인의 이주(1937년) 당시 고려인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우즈벡인들에 대한 감사표시로 타슈켄트시내 서울공원 입구에'고려인 이주 80주년 기념비' 제막식 거행

※ 2017년 고려인 이주 80주년 기념 고려인 유명화가전, 이주역사 다큐멘터리 제작, 학술세미나, 지방순회공연, 갈라콘서트(양국 정상 메시지 송부) 개최

【 한국문화예술의 집 건립 】

○ 고려인들의 한국문화 전승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 문화예술의 집" 건립 작업이 한-우즈벡 협업으로 진행, 2018년 완공

- 양국 정상간 상호 우호증진과 고려인들의 민족문화 보존 등을 위한 '한국 문화예술의 집' 건립 합의(2014.6월 외교부 간 MOU 체결)

- 우즈벡측은 타슈켄트내 부지(3만㎡) 무상제공 및 기자재 면세통관, 각종 세제혜택 제공 / 한국측은 건축경비 부담(총사업비 104억원)

※ 주요시설 : 공연장(470여석), 연회장(대연회장 540여석, 소연회장 100여석), 전시장, 사무실 등

마 의회 간 협력 현황

❑ 양국 의원친선협회

(한-우즈베키스탄 의원친선협회)

○ 회장: 변재일 의원

○ 부회장: 김정훈 의원, 조배숙 의원

○ 이사 : 윤관석 의원, 윤상직 의원, 김성식 의원, 윤소하 의원

(우즈베키스탄-한국 의원친선협회)

ㅇ 회장: 사파예프 (상원 제1부의장)

ㅇ 회원: 고려인인 장 발레리 상원의원, 신 아그리피나 상원의원, 박 빅토르 하원의원 등 8명

❑ 양국 의회 간 교류 현황

ㅇ 2018.2월 이스마일로프 하원의장 방한 계기 양국 의회 간 협력 MOU 체결

ㅇ 2019.4월 문재인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방문 시 의회 연설

한-우즈베키스탄 의회 교류 동향
■ 의원 교류 현황 •방 한 : 「나르바예바」 상원의장('19.8),「이스마일로프」하원의장('18.2), 「아딜호쟈예바」하원 외교위원회 부위원장(' 13.5),「 할릴로프」 하원의장(' 07.5) 등 •방 우 : 진영 의원 등 외통위 의원단('18.12), 정세균 국회의장(' 17.9), 이주영 의원 등 국회스카우트연맹(' 17.8), 이석현 전 부의장 등 외통위 의원단(' 17.7), 김성찬 의원 등 국방위 의원단(' 15.7), 김춘진 위원장 등 보건복지위 의원단(' 14.12), 이완영 의원 등 환노위 의원단(' 13.11), 안규백 의원 등 국방위원회 의원단(' 13.7), 박민식 의원 등 정무위원회 대표단(' 13.5), 한-우 의원친선협회의원단(' 13.5), 이재오 의원 등 대표단(' 13.1), 박희태국회의장(' 12.1), 대통령 특사(안상수, 신성범, 신지호 의원/' 09.9), 박진 외통위원장(' 08.10), 이윤성 국회부의장(' 08.8), 김원기 국회의장(' 05.10) 등

❑ 양국 의회 연구기관 간 교류 현황

ㅇ 우즈베키스탄 입법의회연구소장(하키모프 소장) 방한: 2018.2월 및 2018.11월

ㅇ 방우: 2018.4월 이내영 입법조사처장, 2018.5월 김춘순 예산정책처장

3. 우즈벡 의회 산하 입법·의회 연구소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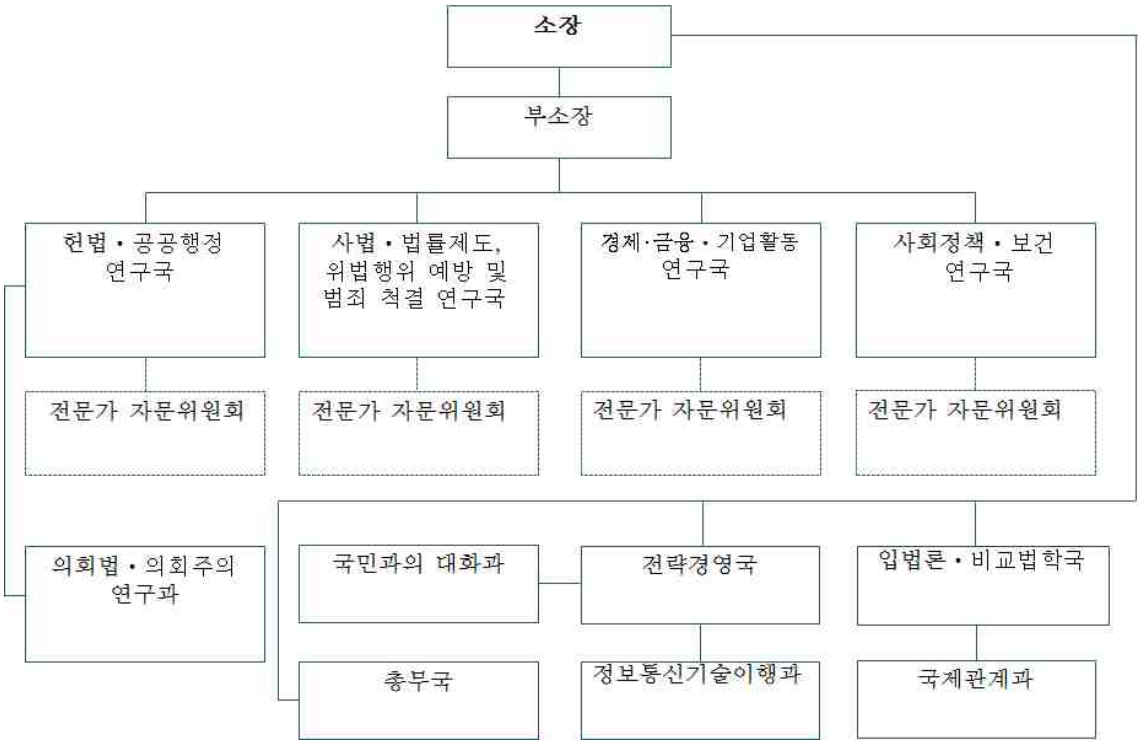
1. 개요

- ㅇ 정식명칭: Legislation and parliamentary research institute
- ㅇ 신설일자: 2018. 1. 1
- ㅇ 초대 소장: 하키모프 라힘 라술자노비치(Khakimov Rakhim Rasuljanovich)

2. 주요기능

- ㅇ 입법문제 연구, 법령·법 집행 관행·의회 활동 개선 방안 준비
- ㅇ 의회 및 상/하원 의원 활동 및 전문성 제고 지원
- ㅇ 법, 정치, 경제 분야 연구
- ㅇ 외국 의회의 경험 연구 및 외국 의회 모범 사례의 우즈벡 의회, 상/하원 의원 활동에의 적용 방식 연구
- ㅇ 국가 입법의 국제 규범·기준 부합성 연구 및 국제 규범·기준의 이행 방안 검토·제안

3. 주요조직



4. 향후 활동 방향

ㅇ 기업, 무역, 생태 분야의 법전 편찬 제안

ㅇ 관료적 낭비의 예방과 제거를 위한 법의 규제영향 평가 방법안고안

ㅇ 제정된 법령의 검토 및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방향으로의 해석

ㅇ 국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입법 연구소 공식 사이트 및 SNS 페이지 개설

ㅇ 법률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연수 개최, 의원의 입법권 행사 지원

ㅇ 행동전략 이행을 위한 경제 분야 법률안의 평가

ㅇ 해외파트너와 세미나 공동 개최

우즈베키스탄 약황

❑ 일반사항

- 국 명 : 우즈베키스탄공화국 (Republic of Uzbekistan)
- 수 도 : 타슈켄트(약 300만명)
- 인 구 : 3,325만명 (2019.7월)
- 면 적 : 447,400㎢(한반도의 약 2배)
- 기 후 : 고온건조한 사막성 기후
- 주요민족 : 우즈베키스탄(81%), 러시아(5.5%), 타지크인(5%), 카자흐인(3%), 카라칼팍인(2.5%), 고려인(0.6%)
- 언 어 : 우즈베키스탄어(공용어), 러시아어(통용어)
- 종 교 : 이슬람교 88%(수니파 70%), 러시아 정교 9%, 기타 3%
- 시 차 : 우리시간 -4

❑ 정치현황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임기 5년)
- 의회구성(총 250석)
  - 상원(100석), 하원(150석)
  - 자유민주당, 민주당, 인민민주당 등
- 정부 주요인사
  - 대통령 : 미르지요예프(Mirziyoyev)
  - 총리 : 아리포프(Aripov)
  - 외교장관 : 카밀로프(Kamilov)
  - 상원의장 : 나르바예바(Narbaeva)
  - 하원의장 : 이스마일로프(Ismailov)

❑ 경제현황 (2018년)

- GDP : 505억불
- 1인당 GDP : $1,519
- 경제성장률 : 5.1%
- 화폐단위 : 숨(sum)(US$1=8,400숨)('19.4월)
- 교역규모 : 338억불
  - 수출 : 142.5억불 / 수입 : 195.5억불
- 주요자원
  - 원유·가스(확인매장량) : 원유(6억배럴), 가스(1.1조㎥)
  - 광물부존현황(확인매장량, 세계순위) : 금(1,700톤, 11위), 우라늄(9.6만톤, 12위), 몰리브덴(6만톤, 11위)
  - 면화(2.3백만톤, 7위)

❑ 최근 주요 정세

- 카리모프 대통령, '91.12월 대통령 당선 이래 계속 집권
  - '00. 1월 재선
  - '02. 2월 국민투표로 대통령 임기연장(5년→7년)
  - '07.12월 재선
  - '11.12월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7년→5년)
  - '15. 3월 재선
  - '16. 9월 서거(향년 78세)
  - '16.12월 대선
- '16.12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취임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외교관계 수립 : '92.1.29
- 공관설치 : '93.12월
  - 공관장 : 권용우 대사('16.5월 부임)
  - ※ 주한공관설치('96.1월)
    - 비탈리 펜 대사 ('17.5.2 아그레망 부여 / '17.7.18 신임장 제정)
- 교역규모('18년) : 21.39억불
  - 수출 : 21.17억불(자동차부품, 승용차 등)
  - 수입 : 0.22억불(우라늄, 면사, 펄프 등)
- 대우즈벡 투자('18년, 실투자액 누계) : 7억불
- 대한 투자('18년, 실투자액 누계) : 2,100만불
- 고려인동포 : 약 18만명 (CIS내 최다)
- 재우즈벡교민 : 약 3천여명
- 주요인사교류
  - '92. 6월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 '94. 6월 김영삼 대통령 방우
  - '95. 2월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 '97. 9월 술타노프 총리 방한
  - '99.10월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 '00. 6월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방우
  - '05. 5월 노무현 대통령 방우
  - '05. 8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방우
  - '05.10월 김원기 국회의장 방우
  - '06. 3월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 '06. 9월 한명숙 총리 방우
  - '07. 5월 할릴로프 하원의장 방한
  - '08. 2월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 '08. 5월 한승수 총리 방우
  - '08. 8월 북경 올림픽 계기 양자정상회담
  - '09. 5월 이명박 대통령 방우
  - '09. 8월 안상수 특사 방우
  - '10. 2월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 '11. 6월 무스타파예프 대법원장 방한
  - '11. 8월 이명박 대통령 방우
  - '12. 1월 박희태 국회의장 방우
  - '12. 8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방우
  - '12. 9월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 '13. 1월 이재오 특사 방우
  - '13. 5월 양승태 대법원장 방우
  - '14. 6월 박근혜 대통령 방우
  - '14.11월 정홍원 총리 우즈벡 경유
  - '15. 5월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 '16. 5월 황교안 국무총리 방우
  - '16. 9월 이준식 부총리 방우
  - '17. 3월 이준식 부총리 방우
  - '17. 7월 박원순 서울시장 방우
  - '17. 8월 쿠츠카로프 부총리 방한
  - '17. 9월 정세균 국회의장 방우
  - '17.11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방한
  - '18. 2월 김동연 부총리 방우
  - '18. 2월 이스마일로프 하원의장 방한
  - '18. 5월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방우
  - '18.11월 반기문 전유엔사무총장 방우
  - '19. 3월 가니예프 부총리 방한
  - '19. 4월 문재인 대통령 방우

❑ 북한과의 관계

- '92. 1월 외교관계 수립
- '93. 7월 주우즈벡 북한대사관 개설
- '16. 8월 주우즈벡 북한대사관 폐쇄

※ 우즈베키스탄은 주북한 상주 대사관 미설치, 주중 대사관이 겸임